

태봉과 후백제의 덕진포해전

愼 成 宰*

1. 머리말
2. 해전의 시기와 장소
3. 함대의 이동
4. 배치와 접근, 해전
5. 맺음말-해전의 의의

1. 머리말

후삼국시대에는 泰封¹⁾과 後百濟, 高麗와 후백제를 중심으로 크고 작은 전쟁이 수없이 많이 치러졌다. 그리고 전쟁은 시간을 거듭할수록 더욱 격화된 양상을 띠고 전개되었다. 고려가 후백제에게 대패한 公山(대구 팔공산) 전투와 공산 전투의 설욕을 씻고 전세를 만회한 高昌(안동 병산) 전투, 후백제군과 마지막 決戰을 치러 후삼국을 통일한 一利川(선산) 전투는 널

* 해군사관학교

1) 궁예정권을 말한다. 德津浦海戰이 발발하기 1년 전인 911년에 국호를 기존의 摩震에서 泰封으로 변경하였기에(『三國史記』 卷12, 孝恭王 15년) 이를 사용하였다.

리 알려진 지상전 사례에 해당한다.

한편 이 시대에는 지상전 못지않게 해상전이 치열하였고, 후삼국이 대치하던 정국에도 중대한 전환점을 제공하였다. 912년 8월에 발발한 德津浦海戰은 서해안의 해상권 장악을 둘러싸고 태봉과 후백제가 벌인 이 시기 최대 규모의 해전이었다.

당시 전쟁의 양상은 태봉과 후백제, 신라간 竹嶺 일대에서의 지상전이 일단락되고 점차 서남해안 지방으로 전장이 확대되면서 해상전으로 발전해 가던 상황이었다. 전쟁 양상이 해상전으로 확대된 이유는 보기병력을 동원하여 신라를 선점하고자 태봉이 주도한 지상전이 후백제의 개입과 신라의 대응에 가로막혀 더 이상의 진전이 없던 상황에서 수군력을 이용하여 후백제의 배후를 견제한 다음 신라를 공략해 들어가는 '후백제배후공략책'으로 군사정책을 변경하였기 때문이었다. 이는 후백제에 대한 해상으로부터의 위협을 가중시키는 행위였으므로 궁극적으로는 양국간의 대규모 해상전을 예고하는 것이었다.²⁾

이처럼 덕진포해전은 태봉이 서해안 지방으로 해상권을 확대하면서 후백제의 배후에 위치한 나주 지방에 대한 지배력을 실현시키는 데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점에서 그 의의가 큰 해전이었다. 더구나 이 해전은 태봉과 후백제의 향후 전쟁 수행 전략과 후삼국 정세의 변화에도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던 점에서 전쟁사적 가치 역시 높은 해전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해전을 전론으로 다루면서 전쟁사적 의의를 논한 성과는 찾아보기 어렵다. 해전사, 해양사를 서술한 기왕의 논고에서 간단히 소개되거나, 나주를 중심으로 활약한 왕건의 수군 활동과 연계하여 간략히 언급되는 정도였다. 물론 최근 들어 전쟁 및 해양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

2) 해전 발발 이전 전쟁의 추이, 태봉의 나주 진출과 수군활동, 서남해안 지방에 대한 해상권 확대 과정, 덕진포해전으로까지 발전해 가던 양상에 대해서는 전쟁사적 차원에서 살핀 필자의 「궁예정권의 나주진출과 수군활동」, 『軍史』 57, 2005, 161~194쪽; 2006, 『弓裔政權의 軍事政策과 後三國戰爭의 전개』,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40~88쪽이 참고된다.

면서 전략과 전술적 차원에서 주목한 연구가 나오기도 하였다.³⁾ 하지만 해전의 명칭과 시점, 장소를 비롯한 기초적인 문제에서부터 해전의 수행과 경과, 중세 시대의 해전 수행 방식과 그 특징, 해전의 전쟁사적 의의 등 포괄적으로 다루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덕진포해전을 특별히 전술적 차원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우선적으로 그간 논자들간 여러 견해가 제시되었던 해전의 시기와 장소 문제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논의의 출발점을 삼고자 한다. 이어서 전술적인 관점에서 해전의 진행과 경과를 가능한 상세히 분석할 것이다. 해전 이전 양국 함대의 이동 문제, 함대 전력의 배치와 접근상에 나타나는 양국 수군의 전술적 차이, 해전 수행 방식과 그 특징, 해전의 실상 등을 다룰 것이다. 이를 통하여 덕진포해전이 후삼국 전쟁에 끼친 영향을 살펴보고 해전사적 의의를 재조명해 보고자 한다.

2. 해전의 시기와 장소

덕진포해전은 나주 지방으로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후백제의 배후를 압박해 가던 태봉과 이에 대한 위기의식을 느낀 후백제가 서해상에 대한 해상권을 놓고 벌인 후삼국시대 최대 규모의 해전이였다. 이 해전은 태봉이 905년에 신라 선점을 목표로 竹嶺 일대를 공략한 지상전에서 우위를 확보하였지만, 상주 沙火鎭 부근에서 개입한 후백제가 一善郡(산산) 일대를 장악, 태봉의 남진을 차단하면서 지상루트를 통한 신라 공략이 실패로 돌아가던 현실에서 후백제배후공략책으로 군사정책을 변경하던 상황에서 비롯하고 있었다.⁴⁾ 해전의 승패에 따른 파급 효과가 향후의 후삼국 정세는 물

3) 金州植·鄭鎮述, 「張保臯와 李舜臣 兩時代의 海洋史의 連繫人物 研究 - 王建 海上勢力의 成長과 羅州海戰을 中心으로」, 『海洋研究論叢』 25, 2001; 愼成宰, 2005, 앞의 논문.

론 해전 당사국인 태봉과 후백제의 전쟁 수행 전략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쳤던 만큼 전략 및 전술적 차원에서 상세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해전이 발발한 시기와 장소 문제를 둘러싸고 논자들간 견해 차이가 있으므로 우선 이에 대한 검토를 비판적으로 선행하고자 한다.

A. (909년) 여름 6월에 弓裔가 장군에게 명하여 兵船을 거느리고 珍島郡을 항복시켰다. 또 梟夷島城을 깨뜨렸다.⁵⁾

B1. 開平 3년(909) 己巳에 … 또 太祖에게 명하여 貞州에서 전함을 수리한 후 闕瓘 宗希, 金言 등을 副將으로 하여 兵 2천 5백을 거느리고 光州 珍島郡을 쳐서 함락시켰다. 다시 나아가 고이도에 머무르니 城 안 사람들이 바라보니 진용이 엄정한 것을 보고 싸우지 않고 항복하였다. B2. 다시 羅州浦口에 이르니, 견훤이 친히 兵을 거느리고 戰艦을 늘어놓아 木浦에서 德津浦에까지 이르렀다. 머리와 꼬리를 서로 물고, 水陸縱橫으로 兵勢가 심히 성하였다. 제장들이 근심하기에 太祖가 말하기를, “근심하지 마라. 군사가 승리하는 것은 和에 있지 衆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에 軍을 급히 몰아 공격하니 賊船이 퇴각하였다. 바람을 타 불을 놓으니, 타죽거나 익사자가 태반이었다. 오백여급을 참획하였으나, 견훤은 小舸를 타고 달아났다. 처음에 나주 관내 여러 郡들이 우리와 떨어져 있고 賊兵이 길을 막아 서로 응원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자못 동요하고 있었는데 이때에 견훤의 정예부대를 격파하니 衆의 마음이 모두 안정되었다. 이리하여 三韓 전체 지역에서 궁예가 大半을 차지하게 되었다.⁶⁾

C. (910년) 甄萱이 몸소 步騎 3천을 거느리고 羅州城을 에워싸고 열흘 동안이나 포위를 풀지 않았다. 弓裔가 水軍을 발하여 습격하니 甄萱이 군사를 끌고 물러났다.⁷⁾

4) 이러한 방향으로의 태봉 군사정책의 변화는 愼成宰, 2006, 앞의 논문, 68~78쪽에 자세히 다룬다.

5) 『三國史記』卷12, 孝恭王 13年 夏六月.

6) 『高麗史』卷1, 世家1 太祖 梁 開平 3年.

7) 『三國史記』卷12, 孝恭王 14年.

D. 乾化 2년(912)에 甄萱과 弓裔가 德津浦에서 싸웠다.⁸⁾

위에서 열거한 사료는 덕진포해전이 발발하기까지 나주 해역에서 태봉이 전개한 수군 활동을 전하는 『삼국사기』와 『고려사』의 기록이다. 기록을 통해서 보듯이 덕진포해전의 전황은 B2의 기록을 통해 소상히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해전이 정확히 어느 시기에 발생하였다고 단정짓기 어렵다. 앞 문단에 놓인 B1의 기록이 開平 3년, 즉 909년의 사실을 전하는 기록이므로 그 연장선상에서 보자면 909년의 사건으로 이해할 수 있다.⁹⁾ 여기에 사료 A와 B1의 내용이 대략 동일하다는 점을 근거로 본다면 909년의 사건으로 비정할 여지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앞 문단과 뒤 문단이 연결되어 기록된 형태만으로 B1과 B2의 기록을 동일한 해에 발생한 사건으로 확신하기는 어렵다. 『고려사』의 초기 기록을 보면 시기가 다른 기록들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제법 있다. 따라서 덕진포해전을 B1의 기록만 놓고 909년에 발생한 사건이라고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덕진포해전이 발발한 시기에 대해서는 909년이 아닌 오히려 910년으로 비정한 견해¹⁰⁾가 일찍부터 제기되었다. 이 견해에 따르면 912년에 덕진포에서 견훤과 궁예가 싸웠다고 전하는 사료 D는 부정된다. 그 주된 근거로 사료 C의 사건을 주목하였는데, 견훤이 羅州城을 공격한 시점이 910년이었음에도 2년이나 지난 뒤인 912년에 이를 구원하기 위해 군사작전을 실시했다는 것은 시간적으로나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견훤이 나주성을 공격해 오자 곧바로 수군을 발한 C의 사건 자체를 덕진포해전으로 보았다. 그러나 912년에 덕진

포해전이 벌어진 것으로 기록된 사료 D의 사건을 부정할만한 충분한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약하다. 비슷한 시기에 사료 D의 기록을 주목한 견해¹¹⁾가 있지만, 기사가 워낙 간략하다는 이유만으로 해전의 전반적인 내용은 B2를 중심으로 해석하였고, 해전의 시기 문제에 대해서는 뚜렷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에 비해 위 기록을 모두 신뢰하여 909년과 912년에 걸쳐 별도로 벌어진 사건으로도 보아 왔다.¹²⁾ 이에 의하면 909년부터 혹은 그 보다 한해 전인 908년의 어느 시기부터 견훤이 나주 지역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궁예가 이를 근심하여 909년에 군사를 보내어 정벌토록 하였고, 912년에도 덕진포에서 견훤과 궁예가 전투를 벌였지만 별다른 성과는 없었다고 한다. 이와 비슷한 견해에서도 별개의 사건으로 보았다.¹³⁾ 『고려사』 기록인 사료 B1과 B2의 내용을 덕진포해전에 이르는 909년의 사건으로, 『삼국사기』에 기록된 사료 D의 내용은 912년의 별도 해전으로 해석한 것이다.

이들 견해는 일단 사건을 별도로 파악한 점에서 덕진포를 포함한 인근 해역내에서 태봉 수군과 후백제 수군이 여러 차례에 걸쳐 싸웠을 가능성을 제기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전하는 사료를 그대로 신뢰하였거나, 비록 태봉과 후백제 간 여러 번의 해상 대결이 있었지만 덕진포해전 만큼은 하나의 사건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존재함에도 별도의 사건으로 정리한 점에서 좀더 검증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이상과는 달리 사료 B2와 D의 상이함을 이유로 다음과 같이 세 경우의 가능성을 제시한 견해¹⁴⁾가 있다. 즉 사료 B2의 기록을 취신할 경우

8) 『三國史記』卷50, 列傳10 甄萱.
9) 金州植·鄭鎮述, 2001, 앞의 논문, 173쪽. 태봉 함대가 “羅州浦口에 이르렀다”는 B2의 기록에 주목하여 해전의 명칭을 ‘羅州海戰’으로 명명하였다. 그러나 이때의 나주포구는 해전을 치르기 위해 진입한 장소로 실제 해전을 치른 장소와는 다를 수 있다.
10) 崔碩男, 『韓國水軍史研究』, 鳴洋社, 1964, 76쪽. 이 글에서 처음으로 해전의 명칭을 德津浦海戰으로 명명하였다. 해전의 시기에 대해서는 견해가 다르지만, 명칭에는 동의한다.

11) 日野開三郎, 『羅末三國の鼎立と對大陸海上交通貿易(四)』, 『朝鮮學報』 20, 1961, 79쪽.
12) 鄭淸柱, 『新羅末高麗初 豪族研究』, 一潮閣, 1996, 152~156쪽.
13) 문안식·이대석, 『한국고대의 지방사회』, 해안, 2004, 352~361쪽. 이 중 B1과 B2의 『高麗史』 기록의 전투만을 몽탄해전으로 명명하였다. 나주 방면으로 이어지는 강줄기의 중간 지점에 위치한 몽탄을 해전의 발발 장소로 주목한 것이다.
14) 姜鳳龍, 『甄萱의 勢力基盤 擴大와 全州 定都』, 『후백제 견훤정권과 전주』, 2001, 113~114쪽.

에는 909년의 사건으로 볼 수 있고, D를 취할 경우에는 태봉 수군이 909년에 珍島와 梟夷島 등의 도서지방을 섭렵한 다음 912년에 가서야 덕진전투를 승리로 이끈 것이며, 양 사료를 모두 취할 경우에는 태봉 수군이 909년에 대승을 거둔 덕진전투와 별도로 912년에 또 한 차례의 덕진전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견해는 해전의 발발 시기가 명확치 않은 상황에서 그 가능성을 여러 각도로 제시해 놓은 점이 특징적이다. 그런데 후속하는 논고¹⁵⁾에서는 사료 D의 기록을 중시한 때문인지 그 시기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이 없는 가운데 대체로 912년의 시점으로 정리한 듯하다.¹⁶⁾

이처럼 해전이 발발한 시점에 대해서는 전하는 기록을 바라보는 입장에 따라 909년, 910년, 909년과 912년의 두 차례 등과 같이 상이하게 이해되고 있다. 어떤 사료를 기준에 두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해전 발발의 연대 비정을 달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입장에 따라 견해가 다른 시기 비정 문제의 경우에는 당대의 사실을 기록한 사료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전남 강진의 無爲寺에서 주석하였던 迥微 대사의 행적을 적은 『無爲寺先覺大師 遍光塔碑』가 해전의 시점을 판단해 주는 열쇠가 아닐까 싶다.

형미는 장흥 보림사에 迦智山門를 개창한 體澄의 제자로 일찍이 왕건과 관계를 맺었고, 결국에는 궁예에게 죽임을 당한 고승이었다.¹⁷⁾ 그의 비문에 따르면 三韓이 한창 시끄럽던, “9년(天祐 9 : 912) 8월에 前主(궁예)가 北□를 영원히 평정하기 위해 … 뱃머리를 일으켜 친히 車駕를 몰아가니 羅州가 귀순하였고, 이에 군사를 포구와 섬 옆에 주둔시켰다”¹⁸⁾고 전한다.

15) 姜鳳龍, 「後百濟 甄萱과 海洋勢力」, 『歷史教育論集』 83, 2002, 127쪽.

16) 姜鳳龍, 2002, 위의 논문, 126-127쪽; 「羅末麗初 王建의 西南海地方 掌握과 그 背景」, 『島嶼文化』 21, 2003, 354~355쪽에서는 海戰을 ‘목포대전’으로 칭하였다.

17) 崔柄憲, 「羅末麗初 禪宗의 社會的 性格」, 『史學研究』 25, 韓國史學會, 1975, 23쪽.

18) 「無爲寺先覺大師遍光塔碑」(한국역사연구회, 『譯註 羅末麗初金石文(上)』, 혜안, 1996, 171쪽). “至九年八月中 前主永平北□ □□□ □□□發舳艦親驅車駕 此時羅州歸命 屯軍於浦嶼之旁 武府逆鱗 動衆於郊畿之場”.

형미의 비문에 이러한 기록이 남겨질 수 있었던 배경에는 그가 武州(광주)와 인접한 해변가에서 살았던 사실과 중국 유학을 마치고 난 905년(天祐 2년) 6월 이후로 무주의 無爲岬寺에 주석하면서 경험하였을 사건과 무관치 않을 듯하다.¹⁹⁾ 덕진포와 가까운 곳에서 주석하였던 형미가 목도하였거나 전해 들었을 전황들이 전승되어 그를 기념하는 탑비에 새겨 놓게 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처럼 당대의 생생한 경험을 토대로 작성하였기에 사건의 발발 시기에 대해서도 『삼국사기』에는 간략히 912년으로 표기되는데 비해 비문에는 ‘9년(天祐 9) 8월’인 912년 8월로 보다 분명하게 명기될 수 있지 않았을까 싶다. 금석문 자료에 토대해 볼 경우 덕진포해전은 912년, 그것도 여름 8월에 발발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912년에 발발한 것으로 전하는 『삼국사기』 D의 기록이 정확한 사실이었음을 의미한다. 이 점에서 근거가 부정확한 910년설은 성립할 수 없다. 문제는 과연 909년 혹은 909년과 912년에 걸쳐 벌어진 사건으로 볼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그러나 이 점 역시 기록상의 연결된 특징만을 제외하고는 909년의 사건임을 만족시켜주지는 못한다. 오히려 현장감이 높은 금석문의 기록은 1회의 사건이었을 가능성을 높여 준다. 마찬가지로 909년과 912년에 걸쳐 두 번 치러졌을 가능성 또한 희박하지 않았을까 싶다. 910년을 전후로 태봉의 해상 위협에 직면한 후백제의 대응이 보기병력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사료 C의 기록을 보더라도 덕진포해전이 발발하기까지 후백제의 수군 활동은 매우 제한적이었다. 이러한 전황의 추이는 태봉이 수군을 이용하여 해상 위협을 가중시키면서 서남해안 지방을 대상으로 해상권을 확대시켜 가던 상황 하에서 후백제의 수군을 이용한 대응은 매우 제한적이었고, 실질적인 해상 대결은 발생하기 어려웠음을 반영한다. 금석문에 남겨진 기록과 『삼국사기』에 기록된 912년의 해전 발발 내용, 해전이 발발하기까지의 전황 추이에 의거하여 종합해 보건대 덕진포해전은 912년 8월에 단 한 차례 발발하였을 가능성이 지배적이다.²⁰⁾

19) 한국역사연구회, 1996, 앞의 책, 165~176쪽.

다음으로 해전의 발발 장소로 논점을 옮겨 보자. 이 점에 대해서는 후백제가 함대를 배치한 시발점으로 기록된 사료 B2의 '木浦'의 위치를 어떻게 비정하느냐에 따라 덕진포,²¹⁾ 榮山江 안쪽, 현재의 영산강 하구둑이 위치한 木浦 안쪽 등 다양한 견해가 있어 왔다. 먼저 덕진포로 본 견해는 木浦를 지금의 목포로 파악하고 여기에 후백제의 수군기지가 있었다는 가정하에 견훤이 목포에서 함대를 이끌고 영암 방면에 위치한 덕진포로 향하는 동안 나주에 이미 도착해 있던 태봉 함대가 영산강을 따라 내려와 덕진포로 향하는 과정에서 해전이 벌어진 것으로 이해한다.²²⁾ 해전의 발발 장소로 덕진포를 중시한 입장이지만, 후백제 수군기지의 위치가 목포에 있었다는 주장 자체가 가설인 점에서 신뢰하기 어렵다.

영산강 안쪽으로 파악한 견해는 목포의 위치를 나주 하단에 위치한 榮山浦²³⁾ 또는 영산포 인근²⁴⁾으로 보는 관점에서 출발한다. 즉 후백제군이 목포에서부터 덕진포까지 함선을 늘어놓았다고 하는 기록(사료 B2)을 영산포로부터 덕진포 간에 전함을 배치한 것으로 해석한 것으로, 견훤함대는 영산강 안쪽에서 꼼짝도 않고 처음부터 수비전술로 나왔다는 것이다.²⁵⁾ 그런데 이렇듯이 보기에는 덕진포에서 싸웠다고 전하는 기록(사료 D)이 부정되거나 달리 해석되어야 마땅하다. 현재로서는 그와 같은 이해 방식이 성립할 여지가 거의 없다고 본다.

그런데 이상과는 다른 견해가 있다. 세 번째의 시각이 그것이다. 해전의 장소를 지금의 목포 안쪽으로 보는 견해²⁶⁾에서는 木浦의 위치를 현재의 목

20) 金南奎, 『高麗의 水軍制度』, 『高麗軍制史』, 陸軍本部, 1983, 225쪽 주 17에서는 해전의 명칭을 덕진포해전으로 명명하고 사건 발생 년대를 912년으로 보았다.
 21) 『新增東國輿地勝覽』 卷35, 靈巖郡 山川에 “德津浦在郡北五里 出月出山入海”라 기록된 것처럼 영암 방면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난다.
 22) 崔碩男, 1964, 앞의 책, 77쪽.
 23) 文秀鎭, 『高麗建國期の 羅州勢力』, 『成大史林』 4, 成大史學會, 1987, 19~20쪽.
 24) 李海濬, 『목포의 역사-개항 이전사』, 『木浦市の 文化遺蹟』, 國立木浦大博物館, 1995, 14~21쪽.
 25) 임용환, 『전쟁과 역사』, 혜안, 2001, 317쪽.

포인 영산강 하구로 본다. 따라서 해전의 장소도 자연스럽게 덕진포에서 하류 쪽으로 내려오던 후백제 함대와 태봉 함대가 영산강 하구둑 근처에서 접전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목포의 위치에 대해서는 두 번째의 견해에서 살펴 보았듯이 영산포와 그 인근으로 비정하는 견해가 있기 때문에 재론의 여지가 있다. 더구나 후백제가 나주를 봉쇄하기 위해 “전함을 늘어놓아 木浦에서 德津浦에까지 이르렀다”는 기록으로 보아서는, 덕진포와 대응되는 곳으로 목포는 해상 봉쇄를 하기에는 적합한 위치가 아니다.²⁷⁾

이처럼 해전의 장소에 대해서도 木浦의 위치 여하에 따라 해석이 분분하다. 그런데 이상에 제기된 논의 내용에서도 전술적인 측면에서 결정적으로 간과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실제 해전 수행시의 전함간 지휘 통신 도달 범위와 그것을 고려하였을 경우 함대의 배치는 어떠하였을까 하는 점이다. 당대와 차이가 있겠지만, 1926년(大正 15) 일제에 의해 간행된 해도의 목포, 영암, 영산포 면의 일부 구간을 참고하더라도²⁸⁾ 나주 하단의 영산포~덕진포, 목포 입구~덕진포간의 거리는 상당히 이격되어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또 수로의 굴곡마저 심하여 일률적인 전함의 배치가 어려운 점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²⁹⁾ 통신 수단이 발달하지 않는 중세 초의 상황에서 이처럼 장거리에 걸쳐 전력을 분산시켜 배치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에 가깝다.

1374년(恭愍王 23) 崔瑩의 耽羅(제주도) 정벌 사례를 보면 수군 작전은 기본적으로 일반 항해를 포함하여 적과 조우시의 행동 방침에 대해 사전에 승을 내리고 상호간 약속함을 원칙으로 하며, 참가한 선박을 구분하기 위해 돛대에 깃발로 표식을 삼는가 하면, 육상에 도착시에는 烽火로써 통신

26) 金州植·鄭鎮述, 2001, 앞의 논문, 186쪽; 姜鳳龍, 2002, 앞의 논문, 122쪽.
 27) 李海濬, 1995, 앞의 논문, 17쪽.
 28) 朝鮮總督府, 『朝鮮半島地圖集成』, 1926(1981 學生社 영인), 木浦·靈巖·榮山浦 面 참조.
 29) 영산포 상류~목포, 몽탄~영산강 하구둑의 거리가 73km와 24km인 점을(金京洙, 『영산강 삼백오십리』, 향지사, 1995, 161쪽 및 246~310쪽) 고려하더라도 전함 배치와 작전은 불가능하다.

하도록 조처하고 있음이 확인된다.³⁰⁾ 덕진포해전이 발발하였던 시기에도 해상에서의 통신 문제의 해결은 뜻대에 매달아 의사를 전달하던 방식을 취하였을 것이다.³¹⁾ 따라서 전함의 배치는 마땅히 통신이 가능한 가시거리내에서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는 형태였을 것이다.

한편 후백제가 함대를 배치한 시발점으로 삼은 '木浦'의 위치에 대해서는 어느 곳이었는지 분명치 않다. 그러나 후백제군이 나주 관민과 태봉 함대와 연결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한 배치를 취했던 점에서 영산포 또는 그 인근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해전을 치르기 위한 후백제 수군의 함대 배치는 영산포와 덕진포 간을 잇는, 그러면서도 연결된 형태라기보다는 덕진포 방향 쪽에 주력을, 그 반대 방향에는 군세 과시용의 일부 전함을 배치하였던 것으로 짐작된다. 아마도 그 장소는 태봉 수군이 신속한 돌격을 감행한 점으로 보아서는 조류의 흐름을 타기 용이하고 강한 돌파력을 발휘하기 적합한, 그러면서도 출구 쪽으로는 전투 공간이 어느 정도 확보된 곳이 아니었을까 싶다. 협수로에 해당하는 비로포와 주룡진을 거쳐 나주와 영암 방향으로 물줄기가 갈라지는 기준점에서 덕진포 쪽으로 얼마의 거리를 떨어진 곳이 아니었을까 추정된다.³²⁾

이러한 추정은 조류를 이용한 방어적 측면이 갖는 이점을 통해서도 설명이 가능하다. 해전이 벌어졌다고 전하는 덕진포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주룡진을 반드시 지나야 한다. 수로의 폭이 370미터로 협소하고 유속도 10노트(20km/h)나 되는 이곳은 역항이 불가능하여 순조 때에만 통항이 가능하다.³³⁾ 공격자로서는 조류의 작용과 협소한 해역이 갖는 단점을 극복해야

30) 『高麗史』 卷113, 列傳26 崔瑩.

31) 송나라 사람 徐兢(1091~1153)이 고려를 使行한 뒤인 1123년(仁宗 원년)에 지은 『宣和奉使高麗圖經』(권33, 舟楫 巡船)을 보면 고려의 순시선에서 해상 신호용으로 깃발(旌旗)과 호각(角), 징(鎗)을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2) 나주시 동강면과 무안군 몽탄면 일대를 주목하지만(문안식·이대석, 2004, 앞의 책, 354쪽), 이 역시 덕진포에서 해전을 치렀다는 기록을 무리없이 설명해 주지는 못한다.

33) 金京洙, 1995, 앞의 책, 314쪽.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통과시 위험 부담이 크다. 반면 수비하는 입장에서는 나오는 쪽에 수비군을 배치하여 통과해 오는 전함에 대해 집중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견훤은 이러한 지형적 배치의 잇점을 이용코자 하였을 것이다. 그렇기에 방어망은 주룡진의 안쪽에 형성하였을 것이다.

한편 형미의 행적을 담은 『無爲寺先覺大師遍光塔碑』를 보면 마치 해전을 바로 인근에서 목도한 듯한 인상을 준다. 해전이 끝난 뒤 “군사를 포구와 섬 옆에 주둔시켰다”는 대목이 그것으로, 해전에서 승리를 거둔 태봉 수군의 주둔 위치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기록이 남겨진 듯싶다. 그렇다면 실제 해전이 벌어진 장소는 함대가 잠시 주둔한 해변가에서 멀지 않았던 곳이면서 동시에 영암에 있던 형미가 익히 알고 있던 해역이었을 것이다. 그곳은 덕진포로 표현되었지만 단순히 포구가 위치하던 곳만을 지칭한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포구와 포함한 인접 해역이었다고 짐작되는데, 영암 방면 수로의 시작점에서부터 덕진포간의 어느 해점에서 벌어지지 않았을까 추정된다.³⁴⁾

3. 함대의 이동

덕진포해전이 발발하던 912년 8월 이전의 어느 시기, 양국은 해전을 치르기 위한 사전적 조치로 함대를 덕진포 해역에 집결시켰다. 본 절에서는

34) 최규성, 『新羅下代 西南海 豪族과 王建과의 關係』, 『대의 문물교류 연구』, (재)해상왕장보고기념사업회, 2002, 108~109쪽에서는 견훤이 몽탄진 부근에서부터 영산강 지류가 있는 덕진포까지 횡으로 전선을 배치하고 배후의 육군과 연계하여 태봉 수군의 영산포 진입을 원천 봉쇄하였으며, 해전은 몽탄에서 덕진포에 이르는 수로상에서 발발한 것으로, 해전의 명칭은 덕진포해전으로 명명하였다. 필자 또한 기본적으로 이에 동의하나, 해전의 발발장소만큼은 영암 방면의 덕진포와 인근 수역으로 한정해서 이해하고자 한다.

이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후백제 수군의 이동 경로에 대해 살펴보자. 기존에 제기된 견해에 따르면 후백제 함대의 이동은 909년에 궁예가 진도군과 고이도를 점령하자(사료 A), 이듬해인 910년에 견훤이 직접 보기병 3천을 동원하여 나주에 대한 포위공격전을 전개하였고, 이에 대응하여 궁예가 수군을 발하여 구원함에 따라(사료 C) 견훤이 나주성에 대한 포위 공세를 풀고 그 즉시 육로로 이동, 수군기지로 삼고 있던 목포에 도착하여 수군을 정비한 다음 태봉 함대를 찾아 덕진포 방면으로 향해하였다고 한다.³⁵⁾

그러나 이 견해는 지금의 목포에 이미 후백제가 건설하여 활용하고 있던 수군 기지가 위치하고 있었다는 가정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909년 이래 태봉 우위의 해상전 추이를 통해 보아서도 알 수 있듯이, 목포에 후백제의 수군 기지가 있었을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 가령 그 존재 가능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후백제 수군기지는 결코 온전한 상태로 유지되지 못했을 것이다. 903년 나주에 진출한 태봉 수군이³⁶⁾ 909년 이래 해상통제전을 본격적으로 전개하면서 해상권을 확대해 가던 상황이었으므로³⁷⁾ 나주로 통하는 길목에 존재하던 후백제의 수군기지는 무엇보다도 우선적인 공격의 대상으로 설정되었을 것이다. 나주로 들어서는 수로의 첫 관문인 목포에 후백제군의 수군기지를 그대로 방치해둔 상태로는 실상 어떠한 수군 작전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러한 해석은 근거를 수반하지 않은 추론에 불과할 뿐이다.

또 다른 견해³⁸⁾에서는 903년 태봉의 나주 공취를 시점으로 그곳에 대한 주도권은 태봉 정권으로 넘어갔고, 이로 말미암아 후백제는 나주를 돌파하여 서남해 지방으로 진출하는 직공책 대신에 우회하여 침투해 들어가는 새

로운 전략을 구상하였다고 한다. 나주를 직접 통과하지 않고 고창-영광-함평-무안-목포로 이어지는 서해안 코스를 따라 남진하여 서남해 지방을 우회 침투하는 방향으로 공략의 방식을 선회하였다고 평가한 것이다. 이는 후백제가 全州로 천도하는 과정에서 광주 관할의 서남해안 지방인 高敞으로 진출하였다는 견해³⁹⁾에 착안한 것으로 지상군의 이동 루트 역시 서해안을 따라 형성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렇지만 이 또한 후백제 수군의 이동 경로를 시원스럽게 설명해 주지는 못한다. 후백제의 수군과 육군이 서남해안을 따라 竝進한 것인지, 각각 별도의 이동 경로를 거친 다음 약속한 지점에서 합류하여 해전을 치르기에 앞서 함대를 재편성한 것인지는 분명치 않다.

이와 함께 해전에 동원된 후백제 수군의 전함 확보과정 역시 의문시된다. 잘 알다시피 전함을 건조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양의 목재가 필요하고 선박을 건조하기에 적합한 특수한 공간이 요구된다. 물론 전함 확보는 경우에 따라 일부 어업 및 상업용 선박을 징발하거나 이를 개조하여 충당하는 사례도 발생하였을 것이다. 그렇지만 대다수의 전함은 해전이 발발하기까지 새로이 건조하는 방식을 취했을 것이다. 이 점과 관련하여 邊山과 扶安 지방이 주목된다. 특히 이 중에서도 변산은 고려 왕조의 재목창이라고 불릴 만큼 각광을 받던 곳이었다. 1200년 경 변산의 벌목 책임자로 임명되었던 李奎報가 “목재를 충당하기 위해 해마다 벌목을 하지만 나무가 떨어지지 않는다”⁴⁰⁾며 국가의 材府로까지 극찬하였던 것은 그것을 입증한다. 이처럼 나라의 목재 공급지로서 오랜 역사적 전통을 이어왔던 곳이었기 때문에 변산은 1274년(元宗 15) 麗蒙聯合軍의 일본 정벌시에도 조선용 목재를 공급하는 장소로 선정되었다.⁴¹⁾

35) 崔碩男, 1964, 앞의 책, 76쪽.

36) 『高麗史』卷1, 世家1 太祖 天復 3年.

37) 愼成宰, 2005, 앞의 논문, 178~183쪽.

38) 姜鳳龍, 2001, 앞의 논문, 112쪽.

39) 金壽泰, 「全州 遷都期 甄萱政權의 變化」, 『韓國古代史研究』 13, 1999, 270쪽.

40) 『東國李相國集』卷23, 南行月日記. “十二月 奉朝勅 課伐木邊山 邊山者國之材府 修營宮室 靡歲不採 然蔽牛之大 干霄之幹 相不竭矣”.

41) 『高麗史』卷27, 世家27 元宗3 15年 6月 辛酉.

그런 점에서 변산과 인접한 부안은 선박을 건조하는 조선소로써 더할나위없이 좋은 입지적 조건을 갖춘 곳이었다. 풍부한 양질의 목재를 인접한 변산으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으므로 조선소로 운영하기에는 안성맞춤인 지역이었다. 여몽연합군이 일본 원정을 위한 전함건조지로 부안과 변산을 지목한 것도⁴²⁾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이었을 것이다. 조선소로써 갖는 이러한 이점은 특별히 몽고가 지배하던 시대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덕진포해전이 발발하던 912년 즈음에도 부안이 차지하던 조선소로서의 입지적 조건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다.

910년대 후백제군은 영산강 이북의 영광, 무안 등지에 포진하고 있었다.⁴³⁾ 따라서 그 북쪽에 위치하여 후백제의 지배를 받던 부안과 변산 지방은 당연히 후백제의 수군 양성과 전함 건조 장소로 활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하여 과거에 조선소로 사용되었던 흔적이 발견된 점은 이러한 추정에 설득력을 높여준다. 전북 부안군 진서면 곰소 동편에 위치한 舊鎭 마을이 그곳으로, 1938년 마을 옆의 곰소항을 개설하는 매립 공사를 진행하던 과정에서 선박 건조에 사용되는 못탕목(깔이목)이 수없이 출토되었다고 한다. 이 출토물이 나온 구진 마을의 黔毛浦鎭 일대를 놓고 여몽연합군이 일본 원정을 위해 사용한 조선소의 흔적으로 판단한 견해가 있다.⁴⁴⁾ 이는 매우 고무적인 견해라고 생각한다. 필자는 이 견해를 수용하면서 부안군 진서면 구진 마을의 검모포진 일대를 덕진포해전이 발발하기 이전 시기에 후백제가 전함을 건조하고 수군을 조련하던 장소로 추정하고자 한다.⁴⁵⁾

이처럼 후백제는 부안 지방에서 전함을 확보한 다음 해전에 앞서 덕진포해역으로 함대를 이동시켰을 것이다. 함대 이동은 기본적으로 부안을 출발

42) 朴亨杓, 『麗·蒙聯合軍의 東征과 그 顛末』, 『史學研究』 21, 1969, 69쪽.

43) 文秀鎭, 1987, 앞의 논문, 17쪽.

44) 김형주, 『김형주의 부안이야기 1』, 밝, 2003, 205~217쪽.

45) 문안식·이대석, 2004, 앞의 책, 361쪽에서는 제해권을 상실한 후백제가 전주와 군산 일대에서 수군을 동원하여 서남해 지역으로 진출을 도모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하여 서해안 연안 항로를 따라 남진한 다음 함대의 일부는 나주 치소가 있던 영산포 방면으로 보내고, 주력은 영암의 덕진포 방면으로 이동시키는 방식이었을 것이다. 병세가 성대했던 것으로 묘사된 '水陸縱橫'에 나타나는 육군과 羅州管內와 여러 군을 차단한 군사로 나타나는 '賊兵'의 존재는 필경 보기병이었을 것으로 수군과는 별도의 루트를 통해 이동하였을 것이다. 아마도 그 경로는 분명치 않지만, 910년(開平 4) "錦城이 궁예에게 투항한 것에 분노하여 보기병 3천을 이끌고 錦城을 포위공격하여 열흘 동안이나 풀지 않았다"⁴⁶⁾고 전하는 기록에 나오는 보기병력 3천을 이동시켰던 통로였을 것이다.

후백제 함대와 대비하여 태봉 함대의 이동은 909년 珍島郡과 皐夷島城 점령 사건(사료 A, B1)의 연장선상에서 파악해 왔다. 즉 후백제군이 수군과 육군으로 나주를 포위한 상황에서 왕건이 후백제군의 해상봉쇄군을 역으로 포위하고⁴⁷⁾ 진도와 고이도를 격파한 다음 나주 구원을 위해 영산강을 거슬러 올라갔던 것으로,⁴⁸⁾ 진도군과 고이도성을 점령한 뒤 곧바로 해전을 위해 목포 수로 입구로 진입한 것으로 보았다. 이 견해는 현재에도 별다른 이견없이 받아들여지고 있다. 909년에 서남해 중심 도서인 진도를 장악한 태봉 함대가 중심 도서인 압해도의 북쪽에 연접해 있는 고이도의 해상세력을 제압하면서 영산강 진군을 위한 사전적 조치를 취하였고,⁴⁹⁾ 이를 토대로 영산강을 거슬러 올라가 나주세력과 합류하고자 하였다고 한다.⁵⁰⁾

그러나 고이도를 점령하던 909년에 이어 곧바로 덕진포해전을 치른 것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 덕진포해전은 앞서 논증하였다시피 분명 진도와 고이도를 점령하던 909년보다 3년이나 경과한 뒤인 912년 8월에 발발한 해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909년에 진도와 고이도를 점령한 사건을 해전에

46) 『三國史記』 卷50, 列傳10 甄萱, "開平四年 萱怒錦城投于弓裔 以步騎三千圍攻之 經旬不解".

47) 日野開三郎, 1961, 앞의 논문, 79쪽.

48) 陸軍本部, 『韓國古戰史 2(中世篇)』, 1976, 18쪽.

49) 姜鳳龍, 『押海島의 번영과 쇠퇴 - 고대·고려시기의 압해도』, 『島嶼文化』 18, 2000, 43쪽.

50) 姜鳳龍, 2001, 앞의 논문, 114쪽.

연결시키기보다는 태봉이 점령한 서해안 지방의 주요 군사적 거점을 대상으로 적정 규모의 군사력을 주둔시켜 수군활동의 거점을 확보하고 지역에 대한 지배력을 관철시키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해전에 대비하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진도와 고이도⁵¹⁾가 나주 내항과 외해를 연결하는 전략적인 거점이었으므로 태봉 정권은 이곳을 공취하던 909년 이래 일정 병력의 수군을 주둔시켜 놓고 군사기지로 활용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덕진포해전이 발발하기까지 태봉은 어느 도서를 수군의 전략 거점으로 확보하여 활용하였던 것일까. 도서의 크기와 인구의 거주 능력, 경제적 기반, 후백제 수군의 남하시 대응 속도 등 경제 군사적인 측면에서 보아서도 고이도에 비해 그 후방에 있던 진도가 보다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물론 고이도 역시 전술적인 측면에서 크게 중시되었을 것이다. 玉山城이라고 불리는 산성 시설이 있어 일찍부터 유력세력의 근거지가 되었던 점과⁵²⁾ 909년 태봉 수군이 고이도를 공취하던 시점에서 보이던 ‘城 안 사람들’⁵³⁾의 존재는 주거와 군사적 용도로서 고이도가 차지하던 위상을 잘 반영한다. 그런 점에서 태봉은 909년 진도와 고이도 공취를 계기로 이곳 도서 지방을 수군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전략기지로 활용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태봉 함대는 덕진포해전이 발발하기 3년 전에 확보하여 전략기지로 삼았던 진도 혹은 고이도에 대기하면서 후백제 함대의 동향을 주시하는 한편, 병사들을 휴식시키면서 작전계획을 수립하였을 것이다.⁵⁴⁾ 해상 작전이 고정된 전투 임무 이외에도 경우에 따라서는 전함 이동과 고르지 못한 해상기상과도 싸워야하므로 장거리를 항해해야 하는 수군에게 있어 그 피

51) 압해도 방향에 위치한 전라남도 신안군 古耳島일 듯싶다(文秀鎮, 1987, 앞의 논문, 16쪽).

52) 姜鳳龍, 2000, 앞의 논문, 34~42쪽.

53) 주 6의 사료 B1 참조.

54) 金州植·鄭鎮述, 2001, 앞의 논문, 192쪽에서는 해전에 앞서 고이도에 주둔한 것으로 보았다.

로도는 매우 컸을 것이다. 수군이 조직적으로 정비된 고려 중·후기의 경우를 보더라도 船軍(수군)의 役은 苦役으로 인식되어 기피 현상이 매우 심각했다.⁵⁵⁾ 태봉 정권은 함대 이동시의 피로도가 해전에 영향력을 미치던 사정을 충분히 예상하였을 것이기에 곧바로 덕진포 해역으로 진입시키기보다는 전략적 거점으로 확보한 진도나 고이도에서 휴식을 취한 다음 조수 시간에 맞추어 함대를 이동시킨 것이었다.

4. 배치와 접근, 해전

이제 해전에 돌입하기에 앞서 양국 함대의 배치 상황과 접근 방식, 실제적인 해전의 전개 양상을 살펴보자. 이에 대한 검토는 편의상 앞서 해전의 시기와 장소를 검토시에 활용하였던 사료를 다시 한번 본문 사료로 사용하면서 이해를 돕고자 한다.

다시 羅州浦口에 이르니, 견훤이 친히 兵을 거느리고 戰艦을 늘어놓아 木浦에서 德津浦에까지 이르렀다. 머리와 꼬리를 서로 물고, 水陸縱橫으로 兵勢가 심히 성하였다. 제장들이 근심하기에 太祖가 말하기를, “근심하지 마라. 군사가 승리하는 것은 和에 있지 衆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에 軍을 급히 몰아 공격하니 賊船이 퇴각하였다. 바람을 타 불을 놓으니, 타죽거나 익사자가 태반이었다. 오백여급을 참획하였으나, 견훤은 小舸를 타고 달아났다. 처음에 羅州管内 여러 郡들이 우리와 떨어져 있고 賊兵이 길을 막아서서 응원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자못 동요하고 있었는데 이때에 甄萱의 정예부대를 격파하니 衆의 마음이 모두 안정되었다. 이리하여 三韓 전체 지역에서 궁예가 大半을 차지하게 되었다.⁵⁶⁾

55) 尹薰杓, 『麗末鮮初 軍制改革研究』, 해안, 2000, 73~77쪽.

56) 주 6의 사료 B2와 같음.

위 기록에서와 같이 해전에 임하는 함대의 규모는 후백제 함대가 수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었다. 후백제 함대의 군세를 “水陸縱橫으로 兵勢가 심히 성하였다”고 표현된 점에서도, 제장들이 근심하기에 왕건이 “근심하지 마라. 군사가 승리하는 것은 和에 있지 衆에 있는 것이 아니다”고 말한 점은 일단 수적으로 후백제군이 압도하던 상황을 말해 준다. 해전에 참가하였을 전함을 척수로 환산한 견해⁵⁷⁾에 따르면 태봉과 후백제의 함대 규모가 대략 80척 대 150척이었을 것으로 추산하기도 한다. 이러한 추산은 909년 고이도 점령시에 참전한 태봉 수군의 병력이 2,500명인 점을 근거⁵⁸⁾로 척당 대략 30명이 승선하였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계산한 것이다. 참가한 함선 숫자가 분명치 않고, 고이도 정벌과는 별개의 사건이라는 점에서 사실과는 차이가 있겠지만, 비슷한 시기 태봉 함대의 병력이 3천명 수준을 넘지 않고, 2년 뒤의 출정시에도 70여 척을 거느린 점⁵⁹⁾ 비교한다면 설득력있는 계산이다.

해전에 임하던 함대 배치에서는 양자간에 뚜렷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었다. “羅州管內의 여러 郡들이 우리와 떨어져 있고, 賊兵이 길을 막아서 서로 응원할 수 없었다”는 구절로 보아서는 진입하던 태봉 함대에 대해 후백제 함대가 보기병력을 이용하여 나주세력과 연결될 수 있는 지원 통로를 우선적으로 차단하고 기다리면서 해전에 대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배후에서 발생할 수 있는 逆攻의 가능성 자체를 완전히 차단하여 상호 협공의 가능성을 없앤 상태에서 해전을 벌이겠다는 심산이었다. 그러나 해상 전투에는 그다지 자신이 없었던지 멀리서 보면 마치 뱃머리와 꼬리가 서로 물리는 모습처럼 전함들을 木浦에서 덕진포에 이르기까지 長蛇陣의 형태로 배치하였다. 이러한 배치 형태는 기본적으로 공격력에 주안점을 두기보다는 수비력에 치중하여 해전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상대방을 포위하거나, 선제공

57) 金州植·鄭鎮述, 2001, 앞의 논문, 189쪽.

58) 주 6의 사료 B1 참조.

59) 『高麗史』卷1, 世家1 太祖 乾化 4年 甲戌.

격을 역공하여 궤멸시키고자 한 것이었다.

후백제군이 이처럼 장사진을 취하면서 육지와 근접한 쪽에 전함을 배치한 이유는 지상전에 강한 보기병력의 일부를 선발하여 수군으로 편성하였기 때문이었다. 중국 吳越國에 선박을 파견할 정도로⁶⁰⁾ 해상 활동 및 교섭 능력이 우수하였던 점은 인정되지만, 해상 작전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수군을 제도적인 차원에서 잘 정비한 상태는 아니었다.⁶¹⁾ 그렇기 때문에 주력을 수군으로 편성하였지만 水戰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군사들만으로 충원하기보다는, 전황이 해상전으로 변화하던 현실적 필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급히 물에 익숙하고 싸움을 잘하는 자들을 선발하여 수군으로 편성한 것이었다. 수전에 약한 군사들로 편성하였기 때문에 자연히 함대의 배치는 배후에 육지를 두고, 종횡으로 전면에 겹겹이 두꺼운 방어망을 형성하여 수비력을 강화한 것이었다. 물론 이러한 형태의 陣形이 전함 상호간의 협공과 지원이 용이하도록 간격을 잘 유지하면서 배치되었던 것으로 판단한다면 오산이다. 바람과 조류의 작용이 전함의 움직임에 끊임없이 불규칙하게 강요하므로 대열을 유지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태봉 함대는 후백제의 수군 전력이 덕진포 방면에 집중적으로 배치된 정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 “軍을 급히 몰아 공격하니 적선이 퇴각하였다”는 기록은 그러한 배치 구도를 간파한 자신감에서 나온 적극적인 공격 행위였을 것이다. 전력이 열세였던 상황에서 과감한 돌파력으로 기선을 먼저 제압한 것이지만, 후백제의 주력이 한쪽에만 집중된 상황과 그러한 구

60) 『高麗史』卷1, 世家1 太祖 梁 開平 3年. “太祖推誠撫士威惠並行 士卒畏愛 咸思奮勇敵境 警服 以舟師次于光州塩海縣 獲萱遣入吳越船而還 喬喜甚優加褒獎”.

61) 태봉 수군에 비해 제도적으로 후백제 수군이 열세적이었던 이유는 당대 태봉과 후백제 공히 신라를 우선적인 점령의 대상으로 설정하고 이에 맞추어 군사정책과 군사력 양성을 추진하였기 때문이었다. 즉 신라를 둘러싸고 양국간 대립하던 형국에서 태봉이 신라를 공격하기 위해서는 후백제를 배후에서 견제할 수군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였음에 비해 후백제는 육군 중심으로 신라를 공격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훨씬 이점이 많았다. 따라서 육군 중심의 보기병체제를 운영하였고, 이는 상대적으로 수군의 열세를 초래하였던 것이다.

도의 배치가 갖는 약점을 잘 간파한 다음 선제공격을 감행한 것이었다. 이처럼 태봉 수군은 함대의 배치를 적의 중심에 대한 강한 공격력과 돌파력에 주안점을 두고 빠르고 강하게 타격하기 유리한 密集隊形⁶²⁾과 유사한 형태의 진형을 형성하였다. 돌파력과 파괴력이 장점인 밀집대형을 고수하면서 공세적인 태도를 취하기에 유리한 풍상측에 위치하여⁶³⁾ 조류와 바람의 속도를 활용한 빠른 공격을 계획한 것이었다.

해전은 공격력에 무게를 둔 태봉 함대가 빠른 기동력으로 견훤함대로 돌진하면서 시작되었다. 고대 서양의 사례를 보면 전함이 한 줄로 늘어서서 돌진하면서 전함 중 최소한 몇 척이 적 함대 전열의 빈틈을 뚫고 들어가 측면과 후면을 보호하기 위해 선회하는 적함을 들이받아 격침시키는 공격법을 종종 사용하였다고 한다.⁶⁴⁾ 그렇지만 전력면에서 열세적인 처지에 있던 태봉 함대는 우선적으로 적 함대의 초기 대응 속도를 둔화시키고 지휘부의 통제력에 혼란을 유도시키기 위해 중심부의 방어망을 빠른 속도로 뚫고 들어가는 공격 전술을 감행하였다. 태봉 함대의 중심부를 강타한 공격 전술은 곧바로 효과를 보였다. 선두 중앙에 위치한 전열이 깨져버렸고, 몰려있던 전함들간의 충돌 현상이 발생하면서 전방함과 중위함, 후방함이 뒤섞이는 상황이 연출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종축에만 국한하여 발생한 것은 아니었다. 횡축으로도 연쇄적인 충돌현상이 이어지면서 인접한 전함에까지 파상적으로 퍼져 나갔다.

일반적으로 풍하에 위치한 함대는 적을 공격하기 어렵기 때문에 방어적인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는 단점이 있지만, 함대의 진형 유지가 비교적 쉽다는 장점을 갖는다.⁶⁵⁾ 그런데 이 해역에서는 바람과 조류를 이용한 파

62) 밀집대형이라고 하지만, 고대 그리스의 보병이 사용한 밀집대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전함을 일정한 중심축을 기준으로 밀집시킨 형태로 속도와 간격, 거리를 유지하며 돌파력과 파괴력을 높인 진형을 형성한 것이다. 바람과 조류의 작용으로 정형화된 대형을 형성하기는 어려웠겠지만, 돌파력이 큰 대형을 형성하였을 것이다.
 63) 김주식 옮김, 『해양력이 역사에 미치는 영향』 1, 책세상, 1999, 41쪽.
 64) 이춘근 옮김, 『전쟁의 기원』, 인간사랑, 1990, 113~114쪽.

괴력이 강했던 모양이다. 후백제 함대의 대형이 제대로 유지되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어졌고, 전후 좌우로 충돌이 거듭되면서 급기야는 전함간의 간격도 극도로 밀착하게 되었다. 후백제군이 밀착한 상황을 포착한 태봉 함대는 진행 속도를 늦추면서 적 함대와의 간격을 벌려 놓았다. 이어서 후백제 함대 쪽으로 붙어가는 바람을⁶⁶⁾ 이용하여 火攻戰을 전개하였다. 후백제군의 전함간 간격이 밀착되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화공전의 피해는 인접한 전함에 빠른 속도로 번져나갔고, 그 파급 효과는 통제하기 불가능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하였다.

태봉 함대가 화공전을 주요 전술로 선택한 것은 무엇보다도 당시의 무기체계상 수상작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강력한 공격무기가 부족한 상황에서⁶⁷⁾ 화공 전술이 해상전에서 일반적인 전술로 크게 활용되었기 때문이었다.⁶⁸⁾ 고대 이래로 화공전은 풍향의 영향력을 크게 받기 때문에 바람을 절대적으로 고려하는 전술로 인식되었다. 불이 잘 타는 날짜와 시간을 선택하고, 바람이 적의 방향쪽으로 향할 때와 풍향에 대한 예측이 가능한 구간 중에만 사용한다는 병법상의 원칙과⁶⁹⁾ 上風과 상류에 위치하여 공격해야만 대승을 거둘 수 있다는 舟戰 수행시의 원칙을 담은 중국 병서⁷⁰⁾의 내용은 그것을 잘 보여준다. 태봉 수군은 화공전을 전개하기에 긴요한 이러한 병법상의 이론을 토대로 덕진포 해역에 작용하는 바람의 계절별 및 지형적 변화, 전함이 이동할 경우에 외력으로 작용하는 조류의 흐름 등과 같은 전술 지식을 소상히 파악하는 가운데 해전에 적용하였을 것이다.

65) 金洲植 옮김, 1999, 앞의 책, 42쪽.
 66) 金洲植·鄭鎮述, 2001, 앞의 논문, 189쪽에서는 바람 방향을 서풍 또는 서북풍으로 보았다.
 67) 胡戟, 『中國 水軍과 白江口 戰鬪』, 『百濟史上的 戰爭』, 書景文化社, 2000, 346쪽.
 68) 이를 북방 전술로 평가하기도 하지만(崔碩男, 1964, 앞의 책, 78쪽), 당대까지 해전에서 전통적으로 사용해 왔던 일반적인 해전 전술로 평가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69) 『孫子兵法』, 火攻篇第十二.
 70) 魏汝霖, 『劉伯溫兵書註釋』, 黎明文化公司, 1985, 31쪽 舟戰.

태봉 함대가 화공용으로 사용한 무기에 대해서는 전하는 사실이 없어 단언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후대의 기록이지만 고려 仁宗 13년(1135)에 발발한 묘청의 반란을 진압하는 전투를 보면 반란군과 진압군이 火船과 火毬를 사용한 경우가 있다.⁷¹⁾ 그런데 화구는 당시의 전투에서 해상용이기보다는 육상 攻城用 무기로 활용되었다.⁷²⁾ 때문에 육상용으로 운용하던 무기를 곧바로 해상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기에 무리가 있다. 발사장치 설치에 따른 전투원과 전투 무기의 탑재 제한은 물론 火毬를 발사할 수 있을 정도로 전투 공간이 보장되었는지, 발사시 전함에 미치는 충격 등 전술적으로 적지 않은 문제가 발생한다. 물론 전함에 장착하여 공격하기 용이한 소규모로 개조한다면 문제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당시의 기술적 수준이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을 정도였는지 의문이 든다.

이에 비해 火船은 적군과 조류의 움직임을 파악하기 용이한 임의의 장소에서 공격용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만 수상으로부터 공격을 감행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화선을 장시간 동안 이동시켜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른다. 때문에 장시간 해상작전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전술적으로도 불리한 면이 없지 않다. 그러나 西京의 반란군이 공격한 방식처럼 소형 선박을 화선으로 사용한다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것이다. 화선용 선박을 이동시키는 데 따르는 불편함은 전함의 선미에 매달아 끌고 다닌다면 그다지 문제될 것이 없다. 이 점은 비슷한 시기 비잔틴 제국의 화공전의 사례에서 보이는, 함선들마다 船尾에 불이 활활 타오르는 단지를 매달아 근접해 오는 선박들을 대상으로 화공전을 전개하였던 전술과도⁷³⁾ 흡사한 면이 있어 흥미롭다.

한편 1019년(寬仁 3, 현종 10) 여진족에게 납치되었다가 고려의 수군에

71) 『高麗史』卷98, 列傳11 金富弼.

72) 화구에 대해서는 화약병기가 아닌 재래의 화공용 무기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견도 있다. 제 견해는 許善道, 『朝鮮時代 火藥兵器史研究』, 一潮閣, 1994, 5~12쪽 참조.

73) 김훈 옮김, 『고대의 배와 항해 이야기』, 가람기획, 2001, 167~172쪽.

구출된 일본 여인 石女가 경험한 기록에 따르면, “高麗國의 선체는 높고 크며 병장기를 많이 보유하고 있었고 … 선면은 鐵로 만든 빨과 같았으며, 적선을 衝破하는 도구로 사용하였다 … 또 大石으로 적선을 때려 파괴하였다”⁷⁴⁾고 전한다. 이 중에서 특히 철로 만든 빨과 유사한 모양의 ‘鐵角’과 선박 안에 비치해둔 ‘대석’의 존재가 주목된다. 아마도 이들 무기 중 철각은 적선과 충돌하여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한 파괴용 무기일 것이고, 대석은 선박을 수직으로 내리쳐 깨뜨리거나 인명을 살상하는 용도로 사용된 무기였을 것이다.⁷⁵⁾ 중국 隋代 楊素가 만든 五牙艦의 공격 무장을 보면 적합을 높은 곳에서 타격할 수 있도록 拍竿을 전후 좌우에 여섯 개를 설치한 것이 특징적이다.⁷⁶⁾ 아마도 이 무기 역시 고려 현종대의 사례와 같이 그 외형적 형태로 보아 무거운 물체를 박간의 끝에 매달아 내리치는 방식으로 선박에 타격을 가하여 충파시키거나 선상의 전투원을 살상하는 용도로 사용되어졌을 것이다. 혹자는 이를 두고 당대의 주요 軍船으로 활약한 海鵲船에 장착하여 화공전을 기도한 것으로 추정하는가 하면,⁷⁷⁾ 화공전은 물론 타격 용도로의 사용마저 부정하기도 한다.⁷⁸⁾

그러나 고대 중국의 경우나 고려 현종대의 전함에 장치된 장비의 형태나 무기체계의 특성으로 보아서는 발사용이기보다는 타격용 무기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진다. 이런 점에서 필자는 화구의 사용보다는⁷⁹⁾ 재래의 기름을 이용하여 발화력을 높인 火矢(불화살)와 같은 화공무기와

74) 『寬仁 三年 七月 十三日 內藏石女等解申進申文事 (張東翼, 『日本古中世高麗資料研究』, 서울대학교출판부, 2004, 88쪽). “高麗國船之體高大 兵仗多儲…船面似鐵造角 令衝破賊船之料也…又入大石打破賊船”.

75) 大石의 용도는 林容漢, 『고려 후기 수군 개혁과 전술변화』, 『軍史』 54, 2005, 275쪽의 견해처럼 투석기를 이용하여 발사하였거나, 大形の 弩에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76) 『隋書』卷48, 楊素. “造大艦 名曰五牙 上起樓五層 高百餘尺 左右前後置六拍竿”.

77) 卞麟錫, 『白江口戰爭과 百濟·倭 關係』, 한울, 1994, 21쪽.

78) 胡戟, 2000, 앞의 논문, 355쪽.

79) 金州植·鄭鎮述, 2001, 앞의 논문, 190쪽.

화선을 병행하였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자 한다. 따라서 무기체계가 갖은 이런 특징면에서 후삼국시대의 해전 수행방식의 발전 단계를 논해보자면 활과 화살과 같은 중단거리 무기를 이용한 공격, 철각와 대석을 이용한 근접 충과전술, 지상 전투와 흡사한 방식의 선상 전투 등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지는 전통적인 방식을 답습하던 단계였음을 지적할 수 있겠다. 이 점은 중세시대의 해전 수행방식이 기본적으로 화약무기와 같은 원거리 공격 무기체계로 발달하기까지는 고대적인 성격의 방식이 지속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후백제 함대는 태봉 함대의 바람을 이용한 화공전으로 말미암아 막심한 피해를 입었다. 후백제 수군도 해전에서 화공전이 단연 중요한 전술이었음을 알았을 것이기에 당연히 그것을 이용하여 공격할 계획을 세웠을 것이다. 그러나 해전이 발발하던 주변 해역의 시간대별 조류의 방향이라든지 바람의 방향과 같은 아군에게 유리한 해양기상정보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화공 전술을 미처 사용해보지도 못하고 궤멸된 것이었다.⁸⁰⁾ 이처럼 해전의 승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전장 환경을 제대로 파악치 못한 전술적 결함으로 야기된 문제는 해상에서 전세를 전환할 수 있는 기회마저도 허락지 않고,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야기시켰다. 그 뿐만이 아니었다. 초전에 기선을 제압당한 후백제군은 지휘통제의 혼란으로 말미암아 처음부터 구상했던 보기병과의 협공도 전혀 수행하지 못했다. 결국 후백제 수군을 지휘하던 견훤은 가까스로 얼마간의 병력만을 추스린채 작은 전선을 타고 간신히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

이와 같이 후백제군은 덕진포해전에서의 패배로 말미암아 수군 활동에 극심한 타격을 입게 되었고, 배후인 나주와 서해상에 대한 해상권을 상실당하면서 수륙군의 군사활동이 위축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반해 태봉 정권

은 서해상에 대한 해상권을 완전히 장악하면서 후백제의 배후를 압박할 수 있게 되었고, 수군을 이용한 군사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해나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되었다.

5. 맺 음 말—해전의 의의

덕진포해전의 결과는 후삼국이 대치하던 정국에 새로운 정세 변화를 수반하였다. 무엇보다도 태봉은 해전에서의 승리를 계기로 후백제의 배후인 나주 지방에 대한 지배력을 실현할 수 있게 되었다. 물론 태봉과 나주와의 관계는 903년 나주 진출 이후로 지속적인 지배력 강화 노력에 의해 910년에 이르러서는 태봉에 귀부할 정도로 밀착 관계를 형성한 상태였다. 하지만 여전히 변화무쌍한 전쟁기의 상황에서 나주 지방과 지역민의 동향은 불확실한 상태의 지속이었다. 태봉과 후백제 간 군사력의 우열관계가 뚜렷하게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후삼국의 군사적 지형이 어떻게 변동하느냐에 따라 정치적 입장 역시 변화될 가능성이 높았다. “처음에 羅州管內諸郡이 우리와 떨어져 있고 적병이 길을 막아 서로 응원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자못 중요하고 있었는데 이때에 와서 견훤의 銳卒들을 격파하니 衆의 마음이 모두 안정되었다”고 하는 기록은 나주의 현지 분위기가 오랫동안 유동적인 상황이었으며, 해전의 결과 여부를 놓고 정치적 향배를 저울질하던 사정을 잘 보여준다.

이처럼 덕진포해전이 발발하던 시점에도 나주 현지인들의 정서는 유동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다. 따라서 힘의 우열 관계가 깨지더라도 한다면 지금까지 태봉과의 관계를 청산하고 후백제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선회할 수 있는 노릇이었다. 그러나 태봉 수군의 승리는 이러한 郡民의 불안감을 해소시키는 한편으로 지배권의 변동 가능성을 일축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태봉

80) 근대 이전의 해전에서 해상기상(바람, 조류)은 매우 중요한 전술 정보에 해당한다. 663년에 발생한 白村江(白江)戰에서 日本軍이 패배한(『日本書紀』卷27, 天智天皇 2年 8月) 원인 중의 하나도 氣象을 관측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은 나주 지방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기에 이르렀고, 나주민 또한 그러한 지배를 현실적으로 수용하면서 태봉이 지배하는 지방으로 편입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왕건이 집권하는 고려 왕조로 이어졌고, 918년(태조 원년) 정권을 장악한 왕건은 중앙정부와는 별도의 민사·군사·행정을 담당하는 羅州道大行臺를 설치하면서 지방지배의 제도화를 위한 후속작업을 단행하였다.⁸¹⁾ 중국에는 이곳을 경유하여 후백제 왕 견훤마저 入朝를 청해오면서⁸²⁾ 후삼국 통일을 달성하고 전쟁 역시 마무리되기에 이른다.

덕진포해전은 태봉과 후백제 양국간 군사정책의 방향과 후삼국 전쟁의 향배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일차적으로 후백제는 수군력에 심대한 타격을 입은 가운데 서해안 지방에 대한 해상권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수군활동에 의존한 군사활동은 얼마간은 보류해야만 했다. 때문에 929년(太祖 12) 수군으로 나주로 통하는 海路를 장악하여 고려의 수군활동을 통제하거나,⁸³⁾ 932년(長興 3) 禮成江에 침투하여 고려의 선박 100여 척을 불태우는 등 해상 공략을 재개하기까지는⁸⁴⁾ 보기병력에 의존한 군사활동을 전개할 수밖에 없는 군사정책상의 변화가 수반되었다. 이에 반해 수군의 활약상에 따라 군사전략적 가치를 경험한 태봉은 후백제의 배후를 공략해 들어가는 군사정책과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해전 이후로도 수군을 중시한 군사 활동을 계속하면서 전함 100여 척을 증치하여 수군 전력을 강화한 조치는⁸⁵⁾ 태봉이 후삼국 전쟁을 수행함에 있어 이후로도 수군에 기반한 군사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던 사정을 잘 보여준다.

이와 함께 태봉은 덕진포해전에서의 승리를 계기로 후삼국이 대치한 국면에서 가장 넓은 영역을 확보하게 되었다. “三韓의 땅에서 弓裔가 大半을 차지하게 되었다”고 하는 점은 비록 과장된 측면도 있겠지만, 태봉이 지배

하는 영역적 범위가 훨씬 확대된 사정을 반영한다. 요컨대 태봉은 912년 덕진포해전에서의 승리를 기점으로 서해상에 대한 해상권을 확보하면서 후백제의 해외 교섭 및 군사활동을 봉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고, 전쟁 주도권을 장악함으로써 후삼국 정세를 주도하는 위치에 올라서게 되었다.

(원고투고일 : 2007. 1. 3, 심사완료일 : 2007. 3. 20)

주제어 : 태봉, 후백제, 후백제 함대, 해전, 덕진포해전

81) 朴漢高, 『羅州道大行臺考』, 『江原史學』 1, 1985, 25쪽.

82) 『高麗史』 권2, 世家2 太祖 18年 夏六月.

83) 『高麗史』 卷92, 列傳5 庾黔弼.

84) 『三國史記』 卷50, 列傳10 甄萱.

85) 『高麗史』 卷1, 世家1 太祖1 乾化 4年 甲戌.

<ABSTRACT>

*Taebong vs Later Baekje in the
Naval Battle of Deogjinpo*

Shin, Seong-jae

The Naval Battle of *Deogjinpo* broke out as *Taebong* Kingdom altered its military policy to attack Later *Baekje* in the rear and actively enlarging the marine dominance in the west sea, as the land wars at the *Jukryeong* front which objective was to annex *Silla* became increasingly deteriorating due to *Silla*'s unexpected defence power and *Baekje*'s intervention. This Naval Battle in fact was a single warfare near the coast of *Deogjinpo* in *Yeongam* area in the August of 912, not happened twice like in 909-910 or 909-912 like the previous studies have indicated. The contemporary epigraph source that tells the life of *Hyangmi* proves the records of the Historical Annals of the Three Kingdoms that states the battle occurred in 912.

Taebong and *Baekje* competed in mobilizing the navy for the ultimate battle of *Deogjinpo*, moving and stationing the respective fleets beforehand. *Buan* and *Byeonsan* were the centre for *Baekje*'s shipbuilding and navy training, whereas *Taebong* chose *Jeongju* as its Naval Headquarters. *Taebong* especially fully utilized the *Jindo* and *Goido* areas along with other southwest islands of Korean peninsula, which was conquered and dominated since 909, as its strategic base. This battle unfolded as large-scale *Baekje* Naval Forces attempted a pincer attack with the infantry and the cavalry and *Taebong* Navy responded with taking a bold offensive by forming a close order. The battle was characterized by such tactics as collision-

destruction with iron horn and big stones, as well as fire attack tactics applying the tide and fire arrows. Such facts reflect that although this era was a transitional period to medieval society, naval battles still encompassed the ancient nature due to the immaturity of epoch-making weapon structure.

The results of the battle of *Deogjinpo* made a significant turning point in the dynamics of the Later Three Kingdoms period. The triumphant *Taebong* took the initiative of the wars by totally dominating the *Naju* area. Later *Baekje*, on the other hand, witnessed the decisive strategic failure as it became the object of *Taebong* naval threat from the rear, not to mention ultimately losing the west sea dominance to *Taebong* including the *Deogjinpo* area. Such results also made a deep impact in the subsequent military policies of both kingdoms. After forfeiting the marine dominance over the west coast, *Baekje* was forced to concentrate on infantry and cavalry for military operations. *Taebong* was all too willing to actively pursuing the navy-based military policy, so much that it reinforced the fleet to the end of its regime since the value of navy in the rear attack of *Baekje* has been proven outstandingly successful. The Naval Operations until *Goryeo* unified the Three Kingdoms in 936 and its successive military policies were greatly indebted to the Victory of *Taebong* Navy at *Deogjinpo*.

Key Words : *Taebong*, Later *Baekje*, Later *Baekje*'s Fleets, Navy, The Naval
Battle of *Deogjinpo*